

宗 教 論

(계속)

朴 亨 龍

第三章 宗教의 본質

宗教의 본質이 무엇이나 하는 問題는 容易히解答되지는 問題이다. 宗教의 연구가 流行되기始作하던때부터 諸宗 教를 比較研究하므로써 宗教의 본質을 決定할수있으리라 고 思惟되었다는 此方面의 연구에 難關이重疊하여 目的을達하기 매우힘드는리이다. 宗教란 極히 複雜한性質을 가진 事件이어서 一箇 宗教에도 宗教의分裂때문에 그 本質이 무엇이라고 決定하기 因難한때 많거든 況且 世界모든 宗教에 共通하는 宗教의本質의 觀念을發한이라? 또한가지難關은 여러 宗教의 歷史를考察할때에 考察者의 心에 先入主로되어있는 宗教觀이 없을수없은즉 그考察이 純全히 客觀的이기 어렵다는것이다. 故로 多數의 人士들은 이比較的 歷史的研究로 宗教의本質을 찾기를 斷念하고 萬人에게 보다 適當한 普遍的 宗教는 없으며 到處에 그自體는 同一하면서 相異한形式들의 衣裳을 입었을뿐인 宗教의本質이란 없다고 斷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周到한 比較的 歷史的研究는 비록 朦朧

하나마 可及的 모든 宗教를 包含하는 範式을 提出할 수있을지라도 最善한事實에 符合하는 限에는 信任할만한 것이다. 故로 此에 付加하여 宗教의心理學的考察은 宗教의本質을 決定함에 多大한光明을 비쳐여주는것은 宗教란 人格의事件이어서 此種 考察에依하여 顯露되는바 多大한때문이다. 또 宗教의研究에 形而上學的方法을 應用함이 必要하다는것도 斯界人士들의 漸次 認定하는바 이다. 그러므로 宗教의本質이란 究明할수있는것이오 決코 未決에 付하여 姑捨할바아니다.

宗教의心理的成分을 論함에있어서 宗教의座所와 活動을 人性의 어떤 特殊한機能에 發見하려는 諸說이있다는것을 이미 紹介하고 批評하였거니와 그와 꼭 同一한現象이 宗教의 本質의論議에서도 흔히 發見되는것이다. 아니 宗教의本質의論議는 多部分 그心理的成分의論議에 連續한것이어서 宗教의特殊座所를 指摘하는者 그座所의 性質에비치여서 宗教의本質을 定義하는것이오. 그리하여 宗教는 感情이라. 宗教는 價値判斷이라. 宗教

는 知識이라. 宗教는 神秘經驗이라. 宗教는 道德이라. 宗教는 實踐主義라는 등의 諸說이 生起하였다. 그러나 最近에 進行된 斯界의 研究는 그런 一元論의 考察로부터 宗教生活의 全體를 包括하는 좀더 圓滿한 考察에 轉向한 것이다. 宗教는 人性全體의 여러 機能에 依하는 것이니 만치 人間生活의 어떤 單一方面의 現象에 依하여 代表될 것이 아니다.

一, 宗教는 感情인가?

神秘主義와 敬虔主義(Piety)의 人物들중에 宗教를 感情이라고 定義하는 이들이 있어 왔다. 特히 浪漫主義는 形式的인 오 變通없는 尙古主義에 對抗하여 이러한 自由로운 情緒의 生活의 反動으로서 이 宗教觀을 助長하는 바 多大하였다. 슬라이어막허(F. D. E. Schiermacher 1768-1834)는 浪漫主義의 感化를 받고 이 宗教觀을 力說한 達人이었다. 슬라이어막허의 時代에 獨逸에서 이 宗教觀의 出現을 歡迎할만한 雰圍氣를 構成하는 要素들로는 그 時代의 特色인 칸트의 嚴格主義 倫理主義論의 置重 神學的 獨斷主義 國家全能論 등이 있었다. 此에 附加하여 그 時代 獨逸의 文化人들은 宗教에 對하여 冷靜하였다. 그들은 哲學的 知識으로 驕傲하고 宗教는 無視하였다. 그리하여 當時 獨逸에는 萬事興隆의 氣運이 勃勃히 되 獨 宗教라는 教養있는 社會로부터 矛盾의 것으로서 排斥되려 하였다. 슬라이어막허는 宗教의 危機의 救急策으로

서 宗教의 經驗을 強調하여 宗教의 定義를 在來의 것보다 달리 하였다. 그의 『宗教論』(Reden über die Religion, 1795)은 時勢에 適應하는 劃期的 著書로서 宗教는 當時 教育 있는 사람들의 흔히 生覺한 바와 같이 知識으로 더부러 立할 수 없는 矛盾의 것이 아니라 도리어 人間의 普遍인 것임을 主張하였다. 教養과 宗教사이에는 衝突이 없다. 宗教를 蔑視하는 教養은 淺薄한 傲慢뿐이오 教養을 蔑視하는 宗教는 戲畫뿐이다. 그런데 當時人의 教養이라 하여 尊崇하는 것은 教養이 아니라 濬學뿐이오 宗教라 하여 蔑視하는 것은 宗教가 아니라 그 影子뿐이라고 하였다. 슬라이어막허는 이렇게 當時人에게 賤待받는 宗教에 對하여 宗教의 影子뿐이라는 酷評을 加한 後에 自家流의 新宗教觀을 提出하였으니 그것은 宗教는 感情이라 함이었다.

當時人은 宗教를 다만 國家及個人的 道具 모양으로 여었으나 宗教는 그런 것이 아니라 人의 自己의 運命을 包含하고 있다고 發見하는 此 宇宙의 感情이며 人의 自己를 包含하여 不滅케 한다고 發見하는 無限의 感情이며 人의 神의 存在를 其中에 發見하는 至上力의 現在의 感情이라고 슬라이어막허는 主張하였다. 宗教란 無限의 內에 또는 無限으로 말미암아 있는 모든 有限物의 普遍的 存在의 直接意識이며 永遠의 內의 또는 永遠으로 말미암아 있는 모든 現實物의 直接意識이다. 다시 말하면 宗教란 本質적으로 無限의 意識이며 神의 歸依의 感이다. 宗教에서 人은 絶

對者도 더부러一體를感한다。에드워즈의言辭를 使用하면 宗教는 「有限內에 無限과 現實內에 永遠의溫暖、親密、直接的인 知覺이다 總全에 歸依이다」(Edwards: "The Philosophy of Religion" p. 140)의 宗教定義를 略述하여 宗教는 「絶對歸依의感情」이라고하는바 吾人は 「絶對」라는 文字에 注意함이 可하다。솔라이어막히는 絶對歸依와 相對歸依를 區別하였다。人間은 多數의物과 人에 依存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宗教生活의 起하는 根據는 되지 않는다。絶對歸依의 感情을起하는時 人은 直接 神에 觸한다는 것이다。

솔라이어막히는 依하면 宗教의基礎는 直覺에 潛在하고 널리 人性에 퍼져 있다。人類의 各個는 宇宙의 活力 있는 成員이다。그는 宇宙에 依하여 維持되며 助長된다。每 人의 生涯에 宇宙의 歸依의 感이 意識의 襲來하여 心靈의 生命이 되는 瞬間들이 오는 것이다。이런 瞬間들은 永遠과 絶對가 有限과 依存의 限斷內에 孕胎되며 出生됨과 같다。宗教는 萬有(The All)의 藝術이며 趣味며 意識이다。우리는 無限을 意識함에 우리의 永生과 情操을 가진다。宗教는 單純히 教義와 體系가 아니라 最深하고 最眞한 人類의 生自體이다。사람들이 宗教를 嘲笑할 수 있으나 宗教를 떠나 살 수는 없다。嘲笑者들이라든 乾燥한 教義로 부러 生活한 自然에 轉向할時는 自然의 秩序 整然한 進行 方便과 目的의 應化를 보고 敬畏의 感을 갖게 된다。그런데

그 敬畏의 感은 畢竟 宗教의 本質이다。그것은 萬有의 永遠한 根基와 同情이다。宗教는 이렇게 普遍的이다。우리는 우리의 理性을 消滅하지 않고는 此를 避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모든 陳述로써 發表된 솔라이어막히는 宗教觀은 宗教의 本質은 知識함도 아니고 意識함도 아니라 오직 感覺함이라 함이었다。宗教는 一方에 思想과 絶緣되고 他方에 道德 或 活動과 絶緣된 純全한 感情이다。宗教는 世界의 形而上學의 解釋도 아니고 道德의 立法도 아니라。오직 『無限을爲한 味覺이며 感覺이다』萬一 칸트가 主張한 바와 같이 우리가 萬有을 知識하지 못할진대 우리와 그것 사이에 共通한 生命의 經驗으로써 그것을 感覺할 수 있을 것이다。感情은 思想에서 意志도 過渡하는 精神現象으로서 兩者의 共通基礎를 形成한다。그러므로 神의 意識은 自初로 感情에 依하여 授與되는 것이다。感情이란 有機的 感覺 意味한다。感情이 萬一 『病을 면』 그것은 宗教의 어 되지 못한다。이 危險을 避하기爲하여 感情은 반드시 敬虔的인 行을 要한다。그런데 이 感情은 神의 歸依의 感情이지마는 決코 純全하진 經驗되지 않고 恒常 世界意識과 混雜되는 것이다。神과 世界는 分離키어려거 聯絡되었다。神은 世界를 想像함은 聯合의 結束物을 看過함이오 世界는 神을 想像함은 空虛한 概念을 形成함이오 그러나 神과 世界는 同一物이 아니니 世界는 모든 反

(Antitheses)에 包含하고 最高統一의 神의 反對를 除外한 最高統一이다. 그러면 솔라이어막허의 無限或永遠은 人格의인가? 그는 質問者에게 答하기를 無限의 歸依의 感情의 存在는 必然的으로 無限의 人格됨을 强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汎神論의 傾向한다는 批評을 받았다. 그는 이 批評에 反對하였다. 그가 以上과 같이 神과 世界를 同一視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歸依의 感情을 個人的이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의 神觀을 徹底한 汎神論이라 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마는 그의 神은 人格의 이람보다도 統一體로 思考된 宇宙가 아닌 가하는 疑惑은 無限과 有限의 關係에 對한 그의 見解를 들어 보는데에 滋甚하여진다. 이미 以上에서 暫間言及된 바 있거니와 그의 見解에 우리는 우리 自身の 動作을 發起하는 個性的分離된 自由的動因이 아니라. 大總全의 一部인 萬事에 그 大總全에 依하여 決定되는 者라고 認定되었다. 우리는 우리 自身을 無限實有에 對立하여 有限한 被造物이요 그의 比하면 아모것도 아닌 것임을 發見한다. 無限은 萬事물이요 萬事물인 無限의 出現뿐이다. 모렐(Morel)의 그의 『宗教哲學』(Philosophy of Religion)에서 솔라이어막허의 宗教觀을 採用하고 解說한 대로 『人은 비록 有限物中에서 恒常 어떤 程度로 自身의 自由와 獨立을 感하나 無限하고 永遠한 自存在物의 앞에서는 自由의 感이 消失됨을 느끼고 絕對歸依의 感에 吸收된다』

宗教의 本質인 唯一絕對(The Absolute, The One)의 感情의 交際이니만치 宗教는 사람들을 交際集團으로 組織하고 그 自體를 組織된 禮拜로 表現하려는 傾向을 갖고 있다. 同時에 各人에게 感情의 才量이 있는데 어떤 感情은 社會的이어서 반드시 教會를 生成한다. 自然의 現象에 無窮한 多樣이 있음과 같이 人의 心靈에 無限의 理解도 無窮한 多樣으로 된다. 그래서 歷史의 宗教들의 多數繁殖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宗教들의 無限에 接近한 程度는 千差萬別하다. 마는 絕對歸依의 感情이 庶物崇拜로부터 基督教에 이르기까지 모든 形의 宗教의 本質이다. 어떤 方式으로 이 歸依의 感이 自體를 啓示하는지는 主로 個人이나 集團의 開化의 程度에 依賴한다. 그 個人이 啓蒙되고 純粹할수록 그는 더욱이 歸依의 感에 包含된 바를 能히 理解할 것이다. 古代의 이스라엘은 無限에 例外로 密接하였었다. 그리고 나서 몇 세기에서 無限은 最強度의 出現에 達하였었다. 그는 神意識을 完全히 가지지 않으므로 우리의 規範이 아니다.

솔라이어막허의 宗教觀은 效果를 多産하여 知識階級을 基督教에 拂歸하고 基督教을 사람의 內面生活에 回復시켰다고 한다. 그가 人과 神의 接觸을 宗教의 本質의 事件으로 보아 宗教의 經驗의 必要를 強調한 것은 價値가 多大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接觸의 經驗이 반드시 感情을 通하여서만 實現되는 줄로 말한 것은 아모래도 偏僻됨을

免치 못한다。感情이 宗教生活에 重要한地位를 가진것이 無疑하지마는 獨特한地位를 가진줄로보는것은 正見이아 니다。感情을 宗教의源泉인것처럼 보는것은 더욱 不正 確한 見解이다。솔라이어막허의 宗教의概念은 宗教를全 然 主觀의의것으로 人間要因들의 產物로만들고 그것과 絶對眞理와의關係를 不知한다。人間의感情에 大問題는 感覺 或 知覺이 愉快하냐 不愉快하냐함이오。그것이 眞 되느냐偽되느냐함이 아니어늘 이것이 宗教에 最重要한 問題라고한다。眞宗教는 感情의事件만이아니라 또한 知識 과 決意 或 道德的動作의 事件도되는것이다。그뿐아니 라 이見解는 宗教의感情과 審美的感情의混同에 따라서 宗教와 藝術의 同一視에導하기된다。

參考의 本文及題目

- 一、食口를 救함에는 方舟를 依支할밖에없음 창七7
- 二、더러운 옷덩이와 生命水 렘二13
- 三、天使의손이 지치하는者를 贖良하니 창十五16
- 四、나는 하나님과 날개아래 있는가 룻二12
- 五、원수의 많음을 두려워할것없음 왕하六14
- 六、熱心에對한自服 시百十九139
- 七、信仰否認 요한十二37
- 八、主님學校內에 生徒로있을것 눅十42
- 九、隱密信仰 요三11-2

- 十、메시아의 옷깃을 만짐 마十四31-36
- 十一、예수께 원수되는일이 무언 요十五28
- 十二、現在와 將來의 예수親友 마十二47-50
- 十三、父母에게 勸說敎 막五36
- 十四、기회를 後日로 밀우는者 뎨후四21
- 十五、青年압살놈 삼후十八29
- 十六、主님을 苦待할 눅八10
- 十七、사마리아 문동이 왕하七9
- 十八、復興의기쁨 시八五〇
- 十九、니느웨城復興 요나四5-11
- 二十、現在의救贖 민十三30
- 二十一、新舊信仰 렘六16
- 二十二、마음의 착잡 눅十五18
- 二十三、씻음받은 靈魂의 노래 시五一10-13
- 二十四、眞實의 根本은 믿음 행二六18
- 二十五、두가지 秋收 갈六7-8
- 二十六、贖罪의 重大性 고린二2
- 二十七、宗教는 公順從이다 마七21

